

〈한국 빵 과자문화사〉 펴낸 조승환 고문

“이 책은 내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한국 제과역사의 산증인 (사)대한제과협회 조승환 고문이 미수가 가까운 나이에 한국 제과업계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일을 해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 있는 자료까지 샅샅이 훑어서 100여 년의 한국 제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한국 빵 과자문화사〉를 펴내 후손들에게 우리나라 제과업계의 소중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글 · 홍선화 편집장 | 사진 · 안성철



요즘 궁중음식을 소재로 한 사극의 인기몰이가 한창이다. 이름도 낯선 진기한 궁중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이 드라마는 역사에 나와 있는 음식을 철저한 고증을 거쳐 다시 재현해 당시 음식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우리나라에 빵·과자가 들어온 지는 100여 년이 훨씬 넘었지만 전래 과정과 현재의 제과 문화가 성숙되기까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헌이 단 한권도 없다는 사실은 제과인은 물론 일반 사람들도 기이해 한다.

언제나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조승환 고문은 20여 년 동안 (사)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조고문과 오랜 세월 함께 한 지인 이선우 씨가 1994년 제과 주간지 〈베이킹 타임스〉를 창간하자 ‘한국 빵과자의 비사’라는 제목으로 제과 역사를 다룬 기사 연재를 시작해 창간호부터 1년 남짓 동안 한국 제과사를 정리했는데 이 작업이 〈한국 빵 과자문화사〉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됐다.

86세의 노구에서 불구하고 “이것이 늙은 내게 주어진 소명이다”라는 책임감을 느낀 조고문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과 역사의 기록을 찾아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 있는 자료까지 샅샅이 훑어가며 얻은 자료를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대성해서 지난해 12

월 마침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역사서를 발간했다.

총 716쪽, 10장으로 분류

팔순이 넘은 노구에 집필을 맡아 (사)대한제과협회에서 발간한 <한국 빵 과자문화사>는 빵과자의 기원부터 광복후의 발전사, 빵과자의 단체사, 국제교류, 기술교육사, 재료, 제과의 위생행정과 세부행정, 전통과자, 제과업계의 비사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10장으로 나눠 누구나 읽기 쉽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716쪽이나 되는 방대한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제과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24장의 컬러 사진을 비롯해 약 2천 년 전인 기원전 1927년 왕의 묘지 벽화에 그려진 그림까지 담았다. 이 그림은 두 명의 남자가 작대기를 지팡이 삼아 노랫가락에 맞춰 발로 빵 반죽을 하는 모습부터 빵이 완성되기까지의 공정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책을 쓰면서 맥도 모르고 칩통을 흔든다는 속담을 실감했어요. 역사를 찾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지 깨달았죠. 자료 수집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우리나라에 빵·과자가 처음 등장한 기록을 찾으려고 일제치하에서 한국 침략을 위한 전초병 역할을 담당하던 동양척식회사 문헌 8만여 권이 수북이 쌓여있는 종로 31빌딩 32층에 있었던 산업은행 자료실을 수십 번 드나들면서 자료를 탐문했습니다. 다행이 일본 제과를 대표하는 모리 나카와 메이치 등 구한말 제과점 사진과 연혁이 실린 <경성대사진첩>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걸 눈앞에 펼친 순간 그 동안의 고생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조승환 고문이 빵·과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59년. 당시 예식업에 종사하던

조고문이 대한예식업연합회 고문을 맡는 동시에 종로예식장 3층에 결혼식 답례 케이크 전문점 ‘스텔라제과’를 경영하면서 제과인으로 발을 디뎠다.

회장 취임 후 제과계 난제 해결

조고문이 제과업계의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63년 1월에 설립한 (사)대한제과협회장을 맡게 되면서이다. 당시 제과점은 ‘유홍음식제’란 세금 명목으로 매상의 5%를 지불해야했

산실 역할을 하는 월간 <베이커리>의 전신 <과자회보>를 창간한데 이어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해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한국제과계의 거목으로 우뚝 섰다.

특히 인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며 의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 의학 차원에서 제과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과업인의 선서’를 제정해 제과인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수많은 원고 친필로 작성

<한국 빵 과자문화사> 원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승환 고문이 친필로 작성했다. 고치고 또 고친 흔적이 남아있는 이면지만 해도 사람 키를 훌쩍 넘길 만큼 엄청난 부피를 자랑한다.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할 만큼 고되고 힘든 작업을 긴 세월 동안 혼자서 해낸 조고문 덕분에 후손들은 정말 소중한 자료를 얻게 된 것이다.

“옛말에 ‘역사는 모범을 가르치는 철학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제과업계에서도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돌아보며 후세를 가늠하기 위해서 역사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온 길을 봐야 앞길이 보이는 법이지요. 미력하지만 이 책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제과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보고, 듣고, 겪었던 사실을 빠짐도, 보탬도 없이 옮겼습니다.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누군가 뜻있는 사람이 보완해주길 바랄 뿐이죠.”

우리나라 제과업계를 위해 반평생을 헌신하시고도 미수가 가까운 나이에 한국 제과업계의 소중한 기록을 값진 유산으로 남긴 원로의 노력은 분명 제과업계가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㉞

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과점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정부에 맞서는 힘있는 단체가 필요했다. 대한예식업연합회 고문으로 단체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조고문은 (사)대한제과협회 창립총회에서 태극당 신창근 사장과 뉴욕제과 김봉룡 사장의 적극적인 지지로 회장으로 추대됐다.

당시 회장 취임식에서 5대 공약을 선포했던 조고문은 회장에 오른 지 1년도 안 돼서 협회 당면과제였던 ‘유홍음식제’를 철폐하고,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4개의 허가장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 제도를 1개로 단일화시키는 등 공약을 완수함은 물론 제과계의 난제를 해결하는 추진력을 보였다. 초대부터 7대까지 12년 동안 협회장을 연임한 조고문은 제과업계의 정보